

‘반도체 해결사’ 이재용, ASML에 EUV 안정적 공급 요청

〈삼성전자 부회장〉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

〈극자외선〉

반도체 초격차 사수 작전 이어가
에인트호번의 ASML 본사 방문
시장전망·사업방향 등 폭넓게 협의
네덜란드 루터 총리와 면담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ASML에 다시 한 번 안정적인 EUV 공급을 요청하며 글로벌 위기속 삼성전자 ‘초격차’ 사수에 힘을 실었다.

1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1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 있는 ASML 본사를 방문해 피터 베닝크 CEO와 마틴 반 덴 브링크 CTO 등 경영진을 만났다. 경계현 사장도 배석했다.

이 부회장은 ASML 경영진과 ▲미래 반도체 기술 트렌드 ▲반도체 시장 전망 ▲차세대 반도체 생산을 위한 미세공정 구현에 필수적인 EUV 노광 장비의 원활한 공급 방안 ▲양사 중장기 사업 방향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이 부회장은 2020년 10월에도 ASML 본사를 찾은 바 있다. 당시에도 코로나19로 인해 EUV 생산이 불안정해지면서 안정적인 공급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이 부회장은 EUV 장비 공급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EUV 확보전에 직접 뛰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 네번째)이 ASML을 방문해 반도체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삼성전자

EUV 생산이 어려워지는 상황, TSMC 뿐 아니라 인텔까지 장비 선점에 나서면서 삼성전자가 확보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이어져왔다.

업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직접 ASML을 찾아 EUV 장비 확보에 나서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다시 한 번 ‘해결사’로 나선 셈이다.

이 부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에도 다시 관심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 부회장은 2000년대부터 ASML 경영진과 오랫동안 수시로 만남을 유지하며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2012년 일찌감치 지분 투자를 통해 파트너십을 강화했

다. ASML이 최첨단 반도체 장비 ‘절대 강자’로 떠오르면서도 삼성전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는 이 부회장 역할이 절대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이 부회장은 ASML 방문에 앞서 네덜란드 마르크 루터 총리와도 면담을 가지며 민간 외교관 역할을 이어가기도 했다. 루터 총리는 지난 3월 당선 직후인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 반도체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이 다시 한 번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양국간 우호에 힘을 실어준 것.

네덜란드는 ASML이 있는 국가일 뿐 아니라, 반도체 연구·개발부터 설계와 장비, 전자기기 등 완제품까지 관련

산업 생태계가 고루 발전해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루터 총리도 평소 ICT와 전기차, e-Health 등 혁신에 기반한 신산업에 큰 관심을 보여왔던 만큼, 삼성과 함께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부회장은 2016년 9월 루터 총리 방문 시 직접 삼성전자 전사관 ‘딜라이트’를 직접 안내하며 인연을 맺었다. 그 밖에도 이 부회장은 기업인 뿐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정관계 리더들과 깊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이전에도 트럼프와 오바마, 부시 전 대통령과 친분을 쌓았고,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와 UAE 반 자이드 대통

령, 인도 모디 총리 등도 이 부회장의 주요 인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외교계에서도 이 부회장 네트워크를 ‘국가적 외교 자산’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부회장은 이어서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루벤으로 자리를 옮겨 유럽 최대 규모 종합 반도체 연구소 ‘imec’을 방문했다. imec은 벨기에와 프랑스, 네덜란드 3개국이 함께 설립한 비영리 종합 반도체 연구소로, 95개국 4500여명 인력이 국가를 초월해 반도체 뿐 아니라 다양한 첨단 분야의 미래 기술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미래 전략사업 분야 신기술 개발과 시장 선도를 위해 imec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루크 반 덴 호브 CEO를 만나 반도체 뿐 아니라 인공지능과 생명과학, 미래 에너지 등 첨단 분야도 소개받고 현장을 살폈다.

이 부회장이 ASML과 imec을 연달아 방문하면서 차세대 기술 개발 가속화와 미래 시장 개척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반도체 비전 2030에 이어 미래 먹거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지난달에는 ‘삼성의 미래 준비’ 계획을 통해 5년간 450조 원 투자 계획을 밝힌 상황. 새로운 투자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취업자 증감 추이



취업자수 93만명 ↑... 22년만에 ‘최대폭’

통계청 ‘5월 고용동향’

숙박·음식점업 등 일자리 회복
취업자수 절반가량 60세 이상
도·소매업, 금융·보험업은 감소

일상 회복으로 지난 달 취업자수가 93만명 이상 늘어나며 22년 만에 최대 폭 증가세를 보였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대면 업종 일자리도 증가하며 회복하는 모습이다.

다만, 정부의 직접 일자리 영향으로 취업자수 절반 가량은 60세 이상이 차지했다. 정부는 고물가와 저성장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향후 고용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2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취업자 수는 2848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3만5000명 늘었다. 5월 기준으로는 2000년(103만4000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업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만8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3만4000명) 등 대면 서비스업 취업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 농림어업(12만2000

명), 운수 및 창고업(12만명), 정부 일자리가 포함된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9만9000명) 등도 크게 증가했다. 공미술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일상 회복에 따른 대면 업종 개선 등으로 취업자는 증가하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해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4만5000명), 금융 및 보험업(-3만9000명) 등은 감소했다. 무인 점포와 셀프 주문기(키오스크) 등 비대면 확산으로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이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45만9000명 증가하며 전체 취업자의 절반(49.1%) 가량 차지했다. 이어 50대 23만9000명, 20대 18만5000명, 40대 3만6000명, 30대 6000명 순으로 늘었다.

지난 달 전체 고용률은 63.0%로 전년 대비 1.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5월 기준으로 최고다.

지난 달 실업률은 3.0%로 전년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13년(3.0%) 이후 5월 기준으로 최저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신동빈, 유럽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홍보

〈롯데 회장〉

‘CGF글로벌 서밋’에 홍보 부스 롯데그룹 현황·헬스케어 등 소개

신동빈 롯데 회장이 세계 각국 소비자 제조사와 유통사가 참여하는 글로벌 행사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힘쓰는 활동을 나선다.

롯데는 20일부터 23일까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리는 ‘CGF(The Consumer Goods Forum) 글로벌 서밋’에 공식 부스를 연다고 밝혔다.

부스에서는 롯데그룹 현황과 식품, 유통 사업의 주요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바이오, 헬스케어, ESG, 메타버스 체험 등 신성장동력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韓 증시 ‘또 연저점’ 환율 13년만에 1290원

코스피 45.59p 하락 2447.38 마감
개인 3463억, 기관 735억 순매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금리결정을 앞두고 국내 금융시장이 또 흔들렸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연저점을 기록한 가운데 13년 만에 원·달러 환율이 1290원을 돌파하는 등 공포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15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5.59포인트(1.83%) 하락한 2447.38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는 2.96포인트

롯데는 이번 전시장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리플릿과 홍보 배너를 배치하고, 82인치 메인 스크린에 부산세계박람회 홍보영상을 상영한다.

신동빈 회장은 김상현 유통군HQ 총괄대표 및 주요 유통, 식품사 대표이사들과 함께 부스에서 글로벌 소비자 경영진을 비롯한 포럼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CGF는 세계 70여 개국, 400여 개 소비자 제조사 및 유통사가 참여하는 소비자 업계의 글로벌 협의체다. 대표 회원사는 아마존, 월마트, 까르푸, 이온, 코카콜라, 네슬레, 다농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롯데는

2012년부터 가입해 활동해왔다.

CGF 글로벌 서밋은 CGF의 대표적인 연례 국제 행사로 소비자 최고 경영진 대상 비즈니스 네트워킹의 자리다.

소비재 제조, 유통회사 CEO 및 C레벨 임원 1000여 명이 참석하고, 코카콜라, 유니레버, 월마트 등 글로벌사 CEO들이 주요 연사로 강연할 예정이다.

신동빈 회장의 CGF 글로벌 서밋 참석은 2015년 이후 7년 만의 일이다. 공식 홍보 부스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그룹 최고경영자들과 함께하는 별도의 비즈니스 미팅에서도 세계박람회 개최 최적지로서의 부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소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서현 기자 seoh@

국내에서도 FOMC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증시에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전일 미국 증시가 미 연준의 75bp(1bp=0.01%p) 금리인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세를 보이며 변동성이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800선을 지키지 못하면서 연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24.17포인트(2.93%) 급락한 799.41에 장을 마쳤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890억원, 667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1469억원을 순매도했다.

/이영석 기자 ysl@